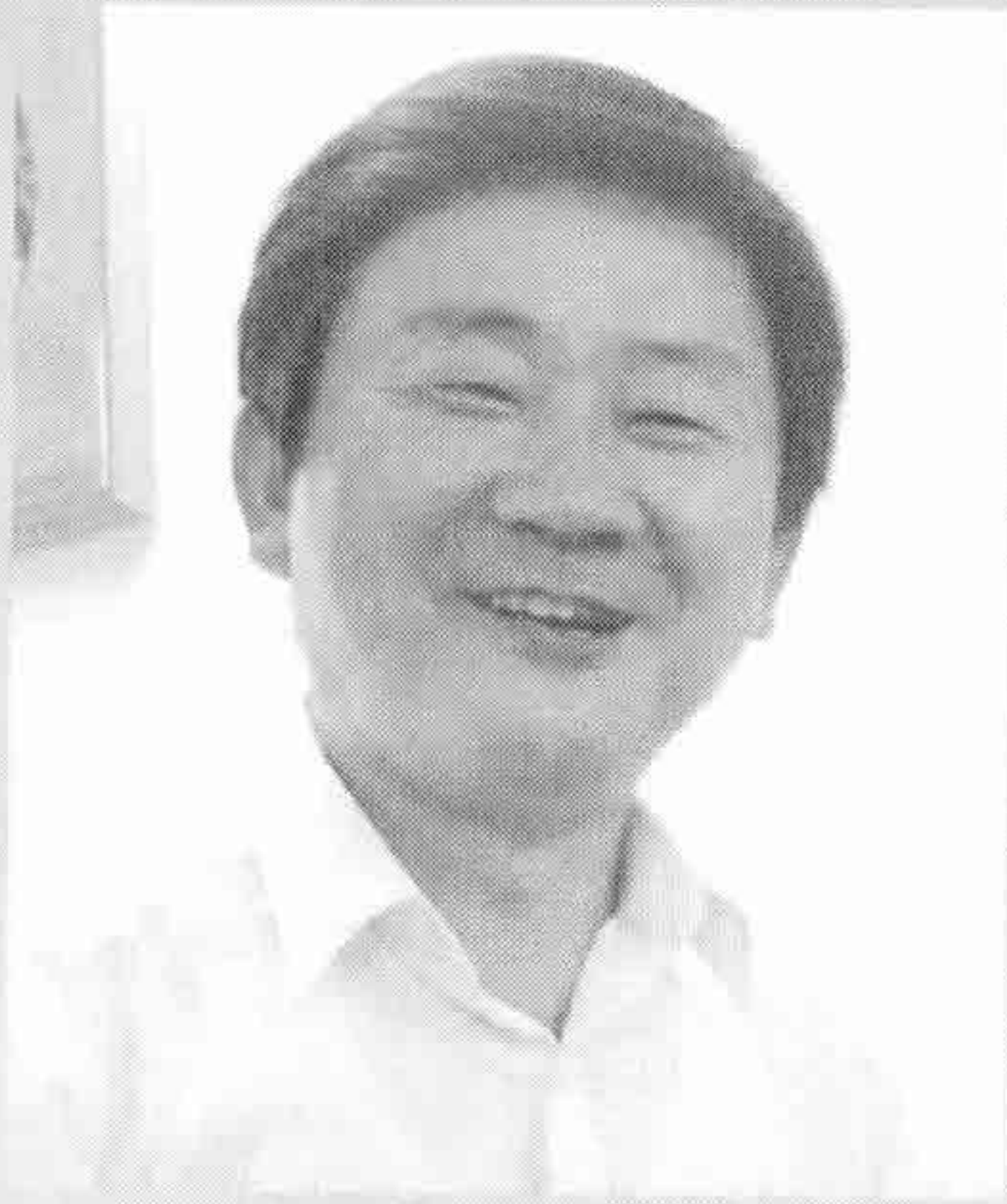


## 첨단 기술이 결합된 고부가 제품 선보여 세계 일류 종합포장업체로 도약



박 봉 준  
(주)대륙제관 대표이사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부탄가스 수출업체인 (주)대륙제관(대표이사 박봉준)은 지난 7월, 세계 최초의 폭발방지 부탄가스인 'CRV 맥스부탄' 과 '18L 각관의 혁명' 이라 불리는 'Necked-in Can' 용기를 선보였다. 이를 계기로 대륙제관은 50년 전통의 제관 인프라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첨단 기술이 결합된 고부가 제품을 내놓으면서 국내 제관업계 리딩 컴퍼니에서 세계 일류 종합포장업체로 '제2의 도약' 을 맞이했다.

특히 'CRV 맥스부탄' 출시로 대륙제관은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1위 달성을 통해 부탄가스의 세대교체를 이룰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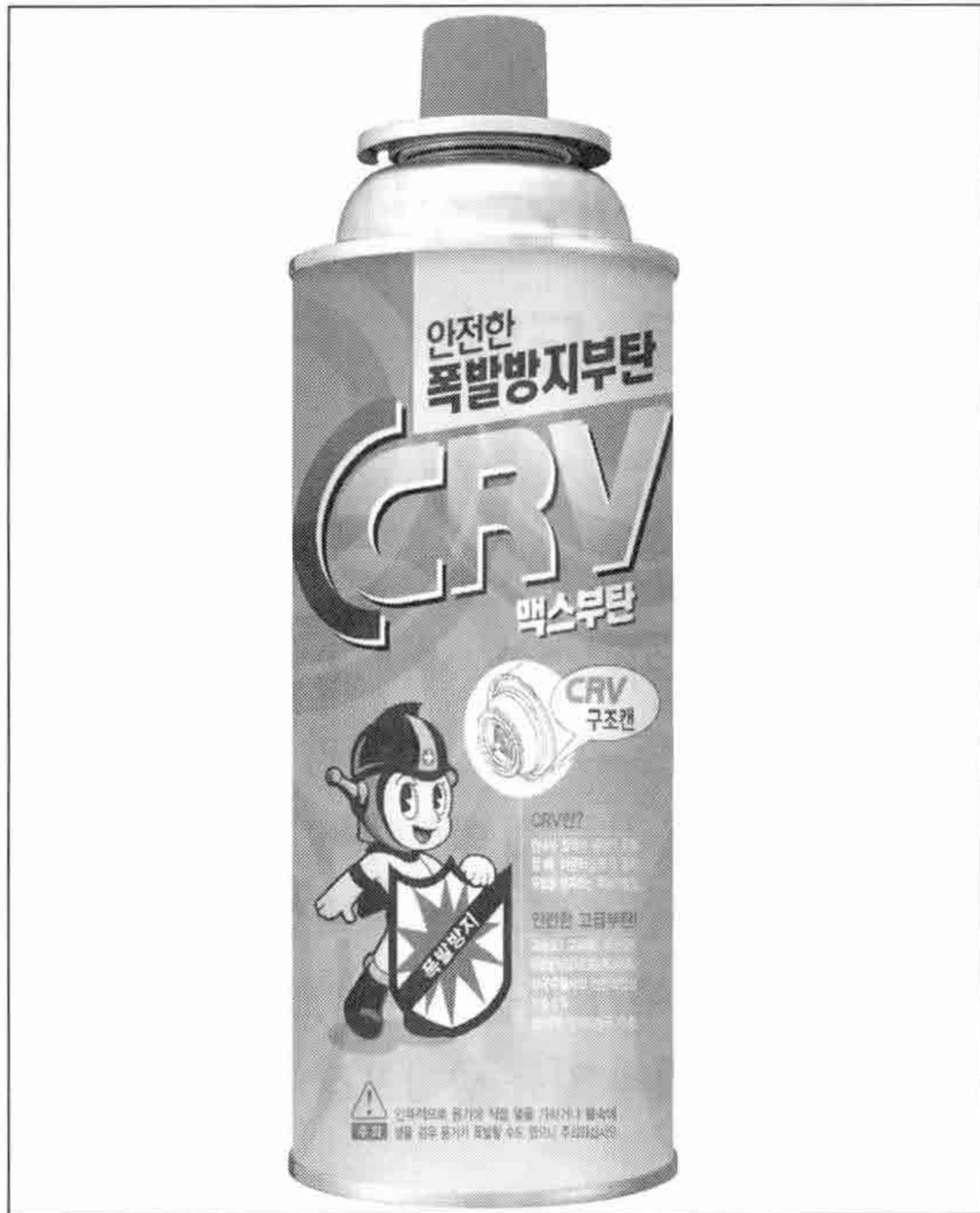
이 제품은 2006년 CRV(Countersink Release Vent) 기술을 적용한 것이다.

그동안 부탄가스는 외부로부터 열을 받으면 충전된 가스 압력이 상승해 용기 본체와 상체부가 분리돼 폭발의 위험성이 높았다. 이 제품은 용기 본체에 충전된 가스를 카운터싱크라는 미세한 구멍을 통해 외부로 미리 배출시켜 폭발과 이로 인한 화재, 인명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CRV 맥스부탄은 현재 전국 홈플러스 69개점에 입점했으며 이후 농협 하나로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와 편의점까지 유통망을 확대할 계획이며, 세계 50개국 1백여개의 업체에 수출될 예정이다.

특히 내수시장의 성장 한계에 대비해 유럽지역 영업력 강화와 미개척 시장인 중동 및 CIS(독립국가연합) 지역의





▲ CRV 맥스부탄

거래선 발굴에 주력하며 미래 50년을 준비하고 있다.

CRV 맥스부탄에 이어 대륙제관은 국내 최초로 18L 각관 'Necked-in Can' 용기를 발명, 특허 출원했다.

식용유관, 과당, 페인트관 등의 금속포장용기로 사용되는 18L각관은 국내에서 생산된 이후로 큰 기술적 변화 없이 현재까지 사용되어 왔으나, 구조적으로 다층적재가 용이하지 않아서 보관 및 취급에 문제가 많았다. 이에 대륙제관은 소비자 및 취급자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에어로졸캔과 같이 원형의 소형캔에만 적용할 수 있는 Necked-In 기술을 18L각관과 같이 사각의 큰 용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 국내



▲ 좌 : 기존 18리터 각형 용기 우 : 대륙제관의 18L Necked-in Can

제관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

이 제품은 기존 각관과 달리 제품 적재시 흔들림과 위험성을 방지하기 때문에 고객사들로부터 큰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용기는 페인트, 식용유를 담는 기존 각형 용기가 여러개를 쌓아 올리기가 어려웠으나 원형 소형캔에 적용되는 기술을 사각의 큰 용기에 적용토록 개발한 제품이다. 대륙제관은 향후 국내 18L 각관이 전부 Necked-in Can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 캔 제품을 곡선으로 처리하는 'Shaped Can' 제품도 국내 최초로 도입할 예정이다.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력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대륙제관은 1950년대 후반, 전후의 폐허 속에서 제관산업에 첫발을 내딛은 기업이다.



윤활유관, 페인트관, 식용유관 등으로 대표되는 일반관과 연료관이라 불리는 휴대용 부탄가스, 일반 에어졸관이라 불리는 살충제와 각종 생활용품스프레이 등을 생산·판매, 각종 제관설비까지 제조, 판매하고 있다.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대륙제관은 일반관 분야 시장점유율 1위의 리더 컴퍼니로서 '새천년, 새로운 가치창조'라는 경영방침 아래 내실을 공고히 하며 고객중심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대륙제관의 지난해 매출은 854억원, 매출 총이익은 74억3000만원을 기록, 올해는 세계최초의 폭발방지 부탄가스의 개발 및 출시에 힘입어 총매출액이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끊임없는 각종 용기 개발 및 신제품 출시로 국내 제관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대륙제관.

박봉준 대표이사는 타기업과의 차별화 전략에 대해 "금속용기 제품의 경우 내용물을 보관한다는 단순한 사용목적으로 인해 차별화가 쉽지 않은 품목지만 용기 외적인 것, 즉 최종소비자가 사용하는데 있어 편의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 당사의 차별화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올해 개발을 완료한 18L 각관 Necked-In Can은 해외 유수의 제관업계에서조차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기술로 현재 다양한 고객사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부탄가스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기초로 한 안전에 초

점을 맞추고 있고 금번 출시된 CRV 맥스는 수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얻은 결실로 막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시장 점유율을 대폭 향상 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 사장은 1986년 업계 최초로 연구개발팀을 신설할 정도로 일찌감치 '기술 혁신'을 중시했다. 그 결과 현재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이 84건, 의장 및 상표등록이 112건에 달하며, 한국표준협회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독일 등으로부터 제품의 품질과 경영시스템을 인정받아 ISO 14001을 비롯한 6개의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고객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기존 제품의 끊임없는 개선을 통해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는 것만이 급변하는 기업 환경 속에서도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응책이라는 박 사장.

이러한 대륙제관의 꾸준한 기술 혁신 및 연구, 개발 노력 덕분에 지난 2006년 충남 아산 공장의 화재사고로 큰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만에 폭발방지용 소형고압용기 특허를 취득하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코스닥 상장 이후 현재까지 12년 연속 흑자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대륙제관. 또다시 놀라운 기술력으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한 박봉준 대표이사의 다음 프로젝트가 기대된다. ☐

이한얼 기자